



사단법인 | 국제기아·질병·문맹 퇴치기구

# 한국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http://www.jts.or.kr>



표지사진 : 필리핀 민다나오 가가 후만의 원주민 아이들

## JTS 통권 55호 2005년 9·10월

펴낸날 : 2005. 9. 1

펴낸이 : 법 료

만든이 : 김경희

도운이 : 김애경, 정한정, 최양희, 서동우  
최정연, 이미경, 유명규, 김순연  
정미숙, 장성호, 김옥희, 심연옥  
고정희, 양윤덕, 김현미, 정유석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화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mailto: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http://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4 스페셜 푸드를 기다리는 아이들

### 지금 북한에선

7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소식

10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내 사랑 아프가니스탄!

### 필리핀 소식

15 가가후만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경험

### 스리랑카 피해지역 2차 답사

18 스리랑카 피해지역 2차 답사

### 후원의 소리

21 마음속 통일의 문을 열어

### 따뜻한 이웃

23 이제는 간절함으로

### 활동보고 및 안내

25 인도지원사업

북한지원사업

기타 해외사업

국내소식

28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30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및 거리모금 현황

34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38 물품후원



# 스페셜 푸드를 기다리는 아이들

김기정 | 인도 JTS 자원봉사자

매주 목요일 이른 아침마다 가야에 있는 과일 시장에서는 스페셜 푸드 마케팅이 열립니다. 저는 뽕뚜와 우펜드라와 함께 오토릭샤를 타고 과일 시장으로 향합니다. 뽕뚜는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학교 학생이고, 우펜드라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주 믿음직한 우리들의 운전기사인데 세 사람 모두 마케팅을 아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로 인해 다툼이 벌어져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스페셜 푸드는 매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8개의 유치원과 수자타 아카데미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주로 제철 과일이 제공되는데 지금은 망고가 제일 맛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망고 마케팅을 합니다. 싼 가격에 맛과 모양이 가장 좋은 망고를 1300개나 사야 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힌두어를 알지 못하니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했는데다가 뽕뚜 또한 마케팅 경험이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뽕뚜와 저는 매주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 충

이곳 사람들은 우리와 참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밥 먹는 것, 볼 일을 보는 방식까지 다릅니다. 우리로서는 좀처럼 가지기 힘든 'No Problem' 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곳의 장사꾼들도 우리와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상점의 경우 처음에는 손님을 단골로 만들기 위해 좋은 물건을 되도록 싼 값에 주려 노력할 것이고, 단골이 된 후에도 서로에게 생겨난 믿음을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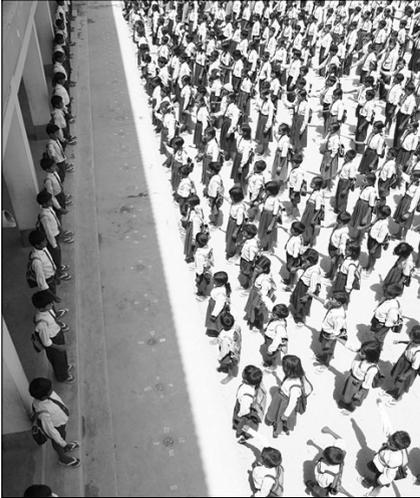


수자타 아카데미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상점들은 일단 단골이 되면 갑자기 가격을 올려받던지 안 좋은 물건을 섞어서 파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망고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크기가 비슷한 것만 넣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은 넣지 말아 달라, 너무 덜 익어 딱딱하거나 너무 익어서 물렁물렁한 것은 넣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잠깐만 한눈을 팔면 바구니 안에 이런 것들이 한가득 들어 있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잦다 보니 망고를 살 때는 가게에 처음 들어가 물건을 보고 고르고, 갯수를 세고 무게를 재고 돈을 지불해서 오토리샤로 운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눈에 붙을 켜고 일일이 지켜봐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들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가득 찬 저의 모

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한다는, 나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을 채근하거나 다그칩니다.

금요일 오전, 종이 땡땡땡 울리면 수자타 아카데미 1~5class 아이들이 스페셜 푸드를 먹기 위해 개인 탈리(접시)를 들고 식당으로 모입니다. 그것도 아주 설레고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요. 좀 좋지 않은 과일을 샀을 때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딱 한번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소가 저를 반성하고 분발하게 합니다. 뻘뻘은 아직 이런 책임감으로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의욕이 앞서고 자신감이 넘치는 만큼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인



들과 한국인들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많은 오해와 다툼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끈이 존재합니다.

JTS가 동게스와리에서 일을 한지 12년이 다된 지금, JTS는 동게스와리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이 없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동게스와리 주민들도 JTS와 함께 했을 때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사이에 어느덧 아름다운 믿음의 씨가 싹트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 이름과 색깔과 향기는 다르더라도 같은 씨에서 자라란 하나의 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깊이 이해한다면 다르다는 것은 결코 어렵고 힘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

러주고 서로의 향기에 취해 보며 서로의 빛깔에 눈이 부시는 듯 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완벽한 하나가 되는 날이겠죠.

정직, 믿음, 성실이라는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준을 이들에게 적용해 평가하려고 할 때 실망, 불신, 오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거창한 계획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소박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1300개의 망고 중에 안 좋은 것이 몇 개쯤 들어간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살 줄 아는 그들의 모습에 내 인생의 무게 또한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망고를 먹이기 위해 동분서주 달려 다니는 뽀뚜와 저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JTS가 존재하며 그 존재의 이유를 위해 오늘도 뽀뚜와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서울시 서초동의 정토회관 강당에서는 박지나 JTS 이사의 북한 방문 보고회가 있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라진·선봉지역의 영양식 공장과 유치원, 학교, 진료소와 농장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 1. 이번 북한 라진·선봉지역의 방문 목적과 주요일정 및 현지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라진 지역 영양식 공장의 재고 파악,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 진료소 등의 상황을 둘러보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지난 8월 2일 새벽에 출발하여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4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도착 다음날인 3일에는 영양식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을 둘러보고 재고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공장에는 18명의 직원과 1명의 신고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양식가루(쌀 45%, 옥수수 25%~30%, 분유 15%)를 이용하여 떡이나 파배기, 빵 등을 만드는데 영양가가 높고 소화흡수가 잘 되고 맛이 좋아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보통 부모들이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때 한달에 쌀 3kg 정도를 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영양식을 먹지 못한 아이들은 울면서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지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JTS에 특별히 허용해주어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일(목)에는 백학 진료소와 굴포리 진료소, 그리고 라선시 종합진료소를 방문하였는데 내부를 둘러본 곳은 라선시 종합진료소 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피부과, 안과, 내과, 산부인과, 구강치과, 외과 등이 있는데 의사가 9명 정도 있었고, 나름대로 깨끗하지만 전체적으로 낡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약은 거의 없고 청진기 등의 기기도 모자라거나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총 10여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여름철이다 보니 설사, 대장 질환의 환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약초를 재배하여 치료에 사용하기도하고, 주로 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JTS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방문이 가능한 곳만을 지원하며 적어도 20여 곳을 둘러본 이후에 컨테이너로 한꺼번에 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굴포리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호수를 막고 개간하여 봄에 비를 1500정보 정도 심었는데 아직 추수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지만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보다 작황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냉해가 있어



수확이 좋지 못했습니다.

## 2. 그곳 사람들의 분위기는 대체로 어땠나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10개월만의 방문이었는데 매우 협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제1부위원장님이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의 교류가 잦은 것에 대해 이곳 사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남북이 보다 활발히 교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의 축구 경기에 매우 흥미를 보였습니다.

3. 얼마 전 중국을 여행하신 분으로부터 ‘중국 국경지역에서 건너보이는 북한 군인의 키가 150cm남짓 되더라. 얼마나 굶주리면 군인마저도 저럴까 싶어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극심한 식량난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 중 느끼셨던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북한은 현재 10여년이 넘는 식량난에다 전체적으로 배급제도가 없어지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인민들은 이중삼중의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라선시는 경제특구라서 평양보다는 못해도 타 지역에 비해 나은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 4. 끝으로 이번 방문의 소감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굴포리 농장을 둘러보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벼를 심고 가꾼 것을 보니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인민들이 피땀 흘려 개간한 이 땅에 올해는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북측의 협조로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취재 · 정리 | 양윤덕

#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내 사랑 아프가니스탄!

유정길 | 한국 JTS 아프가니스탄 카불지원팀장



아프가니스탄 IDP 캠프의 아이들, JTS가 이 지역에 생필품과 문구류를 지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프가니스탄

2002년 처음 도착했던 카불의 겨울, 카테세이에서 바라본 눈 덮인 힌두쿠시의 연봉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살라이 사말리를 지나 코탈 고개를 넘어 장대하게 열려 펼쳐지는 사말리 평야와 그 평야 끝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힌두쿠시의 웅혼함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가을이면 호두나무, 뽕나무, 포도나무, 물푸레나무가 하나같이 똑같은 진노란 색의 장관을 연출하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겨우내 황량했던 사막은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푸른 융단 같은 들풀들이 온통

사말리 평야를 뒤덮고, 야생 튜울립이 지천에 또 다른 카펫을 만들어 내는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재간이 있나요?

힌두쿠시의 코이바바산 하지가각 패스를 넘어 3~4시간 동안 펼쳐지는 팔만사천보살이 화려한 붉은 사암의 기암괴석의 신비로운 파노라마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처절하리만큼 질푸른 반디아미르 호수의 장관과 향훈을 뒤로 한 경외로운 바미안의 대불, 수천 개의 석굴을 쌓은 과거 그 수많은 불심의 원력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감동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고아원과 거리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카불에서 해맞이에서 꼬질꼬질한 검은 기름을 뒤집어쓰고 차량을 정비하는 10살 전후의 그 꼬마들의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다닐 학교를 짓는다고 고사리 손으로 일을 돕던 8살짜리 사팔뜨기 미르아가의 때 묻은 얼굴, 화상 자욱같은 살도나(레슈마니아)로 얼룩진 그 귀여운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칸다하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혼자 걱정하시는 기품 있고 잘 생긴 할아버지, 돈 안 되는 난민촌 돕는 우리 일을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도와주시던 아프가니스탄의 '오마목타르' 아민 할아버지의 그 매력적인 영어 발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내가 깊이 존경하는 다라이 사카르다라 압둘바리 교장선생님의 그 기품과 귀여운 웃음, 눈가의 짙은 주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이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카르다라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격 좋은 형과는 대조적인 불같은 동생 코만도 아래프의 도움도 우리의 아프간 일의 반은 덜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알고 함께 일한 5~60명의 굴리켈 마을 사람들, 하루 7kg의 밀가루만 받고 자기의 일로 나서서 5개월여 다리공사를 했던 순박한 눈의 잘라트 한과 구썬죽 저자이 아저씨, 그리고 그 작고 마른 몸으로 언제나 바람을 가르며 경쾌하게 다니면서 마을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며 기어코 일을 끝내,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어 주었던 굴미르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3년간 작고 작은 월급이었지만, 언제나 기분 좋은 웃음과 긴장된 상황에서 우리를 웃

겨주었던 친동생 같은 사랑하는 우리의 마하메드 하심, 그리고 조각같고 인형 같은 불임성 있는 그의 6명의 귀여운 아이들만 보면 나는 정신을 잃고 체면을 잊게 되곤 합니다. 그 예쁜 꼬마들의 왕방울 같은 큰 눈망울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론 자기 마을을 도와주러 온 우리들에게 돌과 무를 던지며, 신기한 짐승을 보듯 우리를 장난 삼았던 아이들을 보고 살기를 느낄 정도의 분노도 했고, 70루피 거리를 70달러를 달라고 우기는 운전기사를 보면서 성질내며 이를 갈기도 했고요. 그들을 좋아하려고 했지만 돌아보기도 싫었던 한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1년 동안 학교공사 지원을 했다가, 무보수로 참여하겠다는 마을사람들이 첫 약속을 번복하여 크게 상심을 했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 리더가 한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미안하다. 처음에는 물이 얇은 줄 알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깊어서 건너는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당신의 많은 지원을 받아 정말 고맷다. 그러나 우리도 당신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학교를 만들면 당신이 지었다는 이름이 남지 않느냐고...” 당당히 말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도 화가 났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그의 말이 실



제 너무도 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별심을 내는 사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상대를 보고 짜증과 분별을 내는 것은 바로 자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통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 분별을 낼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나를 발견하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약속을 지켜주면 나는 그들을 향해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건만, 언제나 받은 실망, 받은 희망이 교차하면서 아프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 **나는 이곳에 왜 왔을까?**

나는 왜 이 곳에 왔을까? 23년간의 전쟁으로 파괴되어 폐허가 된 이들을 돕기 위해 왔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도왔을까? 나의 3년간의 활동은 과연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아무튼 그동안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은 나의 내면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치부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돌아보게 만들었고,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쉽게 분노하고 경박한지를 깨닫게 한 기회였지요. 잘난 줄 알았던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내 모습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심리적 죄업을 깊이 참회합니다.

### **나를 찾게 해 준 아프간,**

3년을 지나보니, 이들의 삶이나 가난이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나와 같은 물질적, 경제 중심적 소비주의에 물들어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는 생활양식이야말로 극복되고 바뀌어야 할 삶의 양식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한정된 자원 속에 미국과 같은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개발과 발전을 바라한다면 지구의 환경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실은 우리의 삶을 이들에게 이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



했지만 기품을 유지하는 이들 문화의 근저, 인간의 원형을 발견하여 오히려 한국과 미국 등 잘 사는 나라에 이식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주고

있어 아직도 지구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고 있고 따라서 이들의 가난이 바로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 주었고, 따라서 이들의 가난으로 인해 나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JTS가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가난하게 사는 삶'입니다. 바로 그들의 문화전통에 철저히 근거하도록 도와주고, 존중하며, 토착기술과 토착의 방식으로 자연친화적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지속가능한 개발(Ecologic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개발의 모델은 결국 미국처럼, 유럽처럼, 한국처럼 사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좋은 것이며, 하루 빨리 그렇게 되라고 부추기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를 염려합니다.

### 계속되고 있는 바미안의 틈치 직업훈련센터 공사

아무튼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대불 못 미처 틈치난민캠프에는 직업훈련을 위한 건물과 마을회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올 10월경에 끝나면 난민캠프 여성들의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과 카펫 짜는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JTS는 약 3년간 이곳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 가가후만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경험

트렐 | 필리핀 JTS 자원봉사자



2004년 7월 1일, 크리스티와 마를린 두 젊은 대학 졸업생은 원주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산 루이스 가가후만의 산을 올랐다. 크리스티(초등교사 자격 소지자)와 마를린(경영학 전공)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자원봉사의 해' 프로그램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의 해'는 필리핀 카가얀 데 오로세비어 대학 세비어 과학 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비어 과학재단은 잠보앙가에 있는 이필 수도원 상임 주교인 토니 주교가 창립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두 사람의 자원봉사자 크리스티와 마를린의 글을 소개해본다.

## 크리스티의 일기 중에서

'자원봉사의 해'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 특히 원주민들을 위해 1년간 봉사하려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살에서 15살 사이의 어린이 44명을 가르쳤다. 1학년 아이가 40명, 2학년은 3명이었다. 나는 2학년 3명도 1학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했다. 2학년이기는 하지만 알파벳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숫자를 읽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읽기 실력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방과 후에는 개인지도를 했다.



아이들을 다루기는 힘들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처음 나오는 것이었다. 또 결석이 잦은 것도 문제였다.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고 있어 출석을 강요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웃 마을에 축제나 특별한 행사가 있더라도 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나는 수업 계획을 주간 단위로 짰다.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맡은 다른 일들은 마을 활동을 돕고, JTS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다. 나는 제1회 JTS 국제 평화 캠프에서 통역을 맡았다. 구슬 장신구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마을 사람들에게 퇴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가가후만에 배정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쉽게 이해했다. 나는 시골에서 지내는데도 익숙해졌고, 이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원주민들에게도 큰 행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JTS가 프로젝트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학용품도 지급됐다. 그것만으로도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쉽게 되었다. 자원 봉사는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더욱 성숙해지고 책임감도 갖게 됐다.

자원봉사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배우는 일이기도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 마를린의 일기 중에서

우리의 임무는 아동 및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후 개인 지도를 해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기 머무르면서 산업화가 어떻게 공동체의 생활 형태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서구적 가치가 마을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형시키고 있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7월 1일, 우리는 가가후만으로 떠났다. 대략 4시간 정도 걷고 나니 우리는 정말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쉬지않고 한 번에 정상까지 오른 것은 엄청난 경험이었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단순한 생활 습관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지역에 머무르며 나는 원주민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즐기면서 마을안의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극복했다.

일상의 단순한 일들로부터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여가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도시의 생활이 줄 수 없는 실로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맛보았다.

자원봉사를 통해 나는 삶의 현실을 맞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거기서 나는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얻었으며,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나의 가치관이 새롭게 된 것은 마치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이라는 무기만을 갖고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 것과 같다.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봉사활동 기간은 또한 배움의 기간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는 법을,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나 자신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두와 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가후만의 원주민들과 지내면서 나는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움, 사랑, 평화와 화합이 있는 천국에서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었다.



# 스리랑카 피해지역 2차 답사

최정연 | 한국JTS 국제부장

JTS에서는 지난 해 스리랑카의 쓰나미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긴급지원과 복구지원을 했고 또 유치원 개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의 1차 답사에 이어 이번 7월에도 2차 답사를 하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개축 현황을 확인하고 또 추가로 지원할 지역을 답사하였다.

## 답사 개요

1. **답사목적** : 2차 유치원 건설 지원프로젝트 답사 (JTS, KOICA 합작)
  2. **답사일시** : 2005년 7월 13~14일
  3. **답사지역** : 남부 함반토타(Hambantota)
    - 마타라(Matara) → 남서부 갈(Galle)
    - 서부 갈라투라(Kalutara)
- ▶ **2차 프로젝트 지역 답사 - 총 23개 지역**
- 유치원 지을 땅을 못 구한 곳 - 5곳 (땅값은 대략 한 유치원 당 \$4,000 정도)
  - 수리 만 요청 한 곳 - 1곳 : Ahangama Central
  - 마을 회관을 유치원으로 쓰던 곳 - 1곳 : Galabada Athuruwalla
- ▶ **1차 유치원 프로젝트 15곳 중 2곳 방문**

## 답사 내용

### 1. 1차 유치원 프로젝트 지역

▶ **Galle 지역 Venamulla 마을 유치원**  
 현재 임시로 수마나라마 절에서 수업 중이었고 아이들은 30명에 교사는 2명이 있었다. 새로 짓고 있는 유치원은 26~27평 크기로 교실과 베란다 사무실, 부엌, 화장실이 3이 딸린 구조였고 4주 이내로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 **Galle 지역 Akurala 마을 유치원**  
 26~27평 크기로 화장실은 따로 분리시켜 짓고 있었다.



## 2. 2차 유치원 프로젝트 지역

### 1) 남부 Hambantota 지역

- Dankatiya 마을 유치원 : 5세 이하의 아이 수는 18명이고 가구수는 60가구이며 유치원은 임시 촌내에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사르보다야 지부 센터 내 임시로 유치원 운영하고 있었다.
- Madill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는 37명, 총 가구 수는 308가구로 아직도 부서진 벽돌, 블록들이 많았다.
- Marakolliy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38명에 가구 수 310가구로 정부 땅을 지원받아 유치원을 지을 계획이다. 주변에 공동 수도와 저수지가 있었다.
- Idiwinn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34명으로 건물을 지을 터는 사르보다야 지부센터 뒤편에 마련되어 있었다. 사르보다야 지부 센터에서 임시 유치원 운영하고 있고, 센터 앞에 자재 공덕회 후원으로 지은 임시 촌락 있다.
- Samodgam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는 27명, 유치원을 지을 새 땅이 없다. (바다에서 100m 이내라서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음) 무슬림 사람들 마을로 임시 촌 보이고 바닷가라서 피해 큰 지역이었다.

### 2) Matara 지역

- Bathegamama W 마을 유치원 : 아이 수는 22명으로 절 내에 새 땅을 마련했다.
- Suduwell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는 33명이고 238가구가 사는 마을로 새땅을 마련했다.

- Beliwatte 마을 유치원 : 327가구에 아이들이 37명인 마을, 절을 옮기면서 한 쪽 (절의 4/1)에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 Bathegamama E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 15명 정도, Diga 절에서 땅 내주어서 지을 예정이고 유치원이 부서진 자리에 현재 임시 숙소 지어져 있었다.
- Gandara W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28명, 가구수 300가구로 사르보다야 은행 안쪽 땅을 마련했다.
- Pallimull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는 25명, 이 마을도 새 땅은 마련되어 있었다.
- Thotamun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30명, 절에서 땅을 내주었다.
- Kaburugamuw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30명, 작은 법당에 임시로 유치원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옆에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 절터가 높고 전망이 좋아 후원을 받아 명상센터를 지을 계획이라 하고, 임시 숙소 75개가 있는데 외국 엔지오의 후원으로 지었다한다.
- Thalaramb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24명, 새땅이 없는 곳이다. 바닷가 100미터 이내라 아직 땅을 구하지 못했다.

### 3) Galle 지역

- Welhengod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30명, 바닷가 길옆이라 땅을 구하지 못했다.
- Ahangama Central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38명으로 임시 유치원이 있으며 지붕, 벽 수리를 요청했다.
- Paralliy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15명, 새 땅이 없는 곳이다.



- Thelwatte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25명, 부서진 바로 옆에 임시 유치원을 지어 운영 중이며 땅 주인이 집 짓는 용으로만 판다고 한다.
- Patabendimull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40명으로 공동화장실에 유치원이 있었다. 새 땅은 절에서 내 주었다.
- Mohottowatt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28명, 사르보다야 청년회 회원이 적극적으로 안내 해주었고 유치원 건물부지는 마련되어 있었다.

- Wellabad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는 25명으로 그 마을 사르보다야 직원의 땅이 새땅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 Galabada Athuruwalla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25명, 마을 회관 중 일부를 유치원으로 쓰고 있었다. 마을 회관이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쓰나미 이후 그 지역에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해서 Madaoda 절 스님의 허락으로 절 안에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 4) Kalutara 지역

- Kalamulla North 마을 유치원 : 아이 수 15명, 땅을 구할 수 없었는데 교회에서 제공해주었다고 한다.



## 마음속 통일의 문을 열어

서유라 |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순향 회원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얼마전 통일 관련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으기를 했다는 사연이었다.

학생들은 제안에 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으로의 전달 과정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성금을 모아 157,640원을 보내왔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여한 학생의 글을 실어본다.

지난 사회문화시간에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으로 ‘통일수업’이라는 특별 수업을 받았다. 남과 북의 선생님들이 6·15 기념으로 그 일주일 동안은 통일에 관한 수업을 하기로 약속을 나누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벌써 이렇게 남과 북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일사탕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하나씩 나눠 주시고는 통일관련 동화를 보여주셨다. ‘조선’ 이와 ‘한국’ 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동화를 보는 동안 정말 조용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관련 노래를 배웠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에 예쁜 가사는 ‘통일’이라는 딱딱한 주제와는 달리 ‘편안하고 예쁜 동요구나.’ 하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얼마나 친근한 노래였던지,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그 노래들을 부르는 애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그렇게 하기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고, 하루빨리 자주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남과 북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기회에 우리가 따로 모금을 해서 북에 사는 어

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시면서 한달에 5,000원이면 북한 어린이 1명에게 한 달간 영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생님께 서도 3~4년 전부터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웅성이기 시작했다. ‘얼마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가 모금하는 돈이 제대로 전달되긴 할까?’ 하는 이야기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적 어른들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모금을 해봤자, 북측의 군수물자로 쓰이기 밖에 더해?’ 라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주로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불신을 하게 된 것 일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질문이 쏟아지고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모금하는 돈이 북측의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모금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이야기를 마쳤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북측으로 전해지는 구호물자를 비롯한 성금에 대한 불신은 우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다보면 불신들은 점차 줄어들 수 있겠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처럼 서로로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형제애’로 마음 속 통일의 문을 열어 서로를 반겨주는 마음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 이제는 간절함으로

최태련 | 마산 정토회 자원봉사자



“우리나라도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동포돕기 모금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그 말에 안타까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미세한 가슴 떨림으로 ‘우리나라잖아요.’ 하고 다시 말을 건넨다. 이제는 북한이 내 나라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낀다.

북한을 돕겠다는 생각보다는 주위의 권유로 늘 가슴 한켠에 부담을 안고 있던 차에 시작한 거리모금이었다. 한동안 모금은 단지 나의 즐거움이자 마음공부의 대상이었다.

굶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생각하며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이 나를 미소 짓

게 하고, 기쁘게 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끼는데서 모금의 의미를 찾았다.

모금을 하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행동들이 잘도 나온다. 활짝 웃으며, 내가 들어도 너무나 상냥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을 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준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쨌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느끼게 되고, 내가 즐거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내 안의 분별심으로 세상을 보아 온 나에게 그들은 가끔 의외의 감동을 선사한다.

얼굴도 모르는 낯선 거리의 사람들이 평소에 무뎡뎡하고 차가운 면이 많은 나에게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다. 나를 웃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돌 만큼 감동의 편지를 날리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서, 나만의 즐거움에 머물렀던 모금이 이제는 간절함으로 다가온다.

얼마전 북한에서 오신 동포분과 전화 통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총무님의 모습을 보았다. ‘평화통일이 되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해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총무님의 전화기 저편으로 북한 동포의 아픔이 전해져 어느새 나까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미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지금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북한을 떠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한이 전해지며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가슴 깊이 느껴졌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낯선 북한, 북한 동포들, 그리고 통일이 이제는 조금씩 내 안에 차오름을 느끼며 나는 다시 거리로 나간다.

## 인도지원사업

### ●구충제 투약

우기는 많은 사람들이 고열과 복통으로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철이다. 그래서 인도JTS는 의사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유치원학생,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을 주민들은, 마을마다 직접 방문하여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1인당 3알씩 투약 하였다.

### ●독립기념일 식목 행사



8월 15일 독립기념일(인디펜던스 데이) 기념행사로 국기 게양식을 마치고 자립적 마을을 만들자는 뜻에서 수자타 아카데미 전교생에게 과일나무 묘목 2그루씩 나누어 주었다.

상급생과 스탭들이 캠퍼스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꽃나무, 과일 나무 등 200여 그루를 심었다.

### ●산티나가르 유치원 신축

산티나가르 마을 유치원 신축공사가 7월 7일 기초 토공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노동학교 4학년생 2명이 건축파트의 기술자 1명의 지도 하에 마을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보통 다른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무상으로 일을 하지만, 이 마을은 형편이 어려운 곳이라 하루 종일 돕는 사람들에게 쌀 2킬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 ●바가히 유치원 증축공사

바가히 유치원증축 공사가 6월 4째 주부터 진행



되고 있다. 천정을 높이고, 복도를 앞으로 내어서 교실을 넓혔다. 여기에는 청소년노동학교 학생 중에서 바가히 출신 학생 4명과 다른 2학년 1명 그리고 기술자 1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제2차 교사 트레이닝

6월 말 진행된 교사 트레이닝 참석자를 위한 2차 교육이 8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

## 북한지원사업

### ●박지나 이사 라선시 방문



8월 2일부터 4일까지 박지나 이사가 JTS 북한지원사업장이 있는 라선시를 방문하였다. JTS의 어린이 영양식 공장을 둘러보며 영양식재료의 재고 파악과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상태, 영양식 지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또 영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난 어린이들의 공연도 함께 보았다. 라선시 종합 진료소를 방문하여 지난번에 지원한 의약품, 의료기기를 점검했고, 또 라선

시의 의료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 기타 해외사업

### ● 필리핀 현지사업장 방문 및 학교 준공식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을 비롯하여 JTS 후원회원들이 필리핀 민다나오 JTS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이번에는 JTS가 지원하고 있는 13개 마을 18개 교실건축사업 중에서 7개 마을 11개 교실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탈라각 특수학교 기숙사 준공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 ● 대학생 평화캠프 진행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제2차 대학생 평화캠프가 JTS 사업장이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2차 대학생평화캠프는 현재 JTS의 학교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난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참가한 대학생들은 가난 지역의 수로 공사, 학교앞 화단 꾸미기, 문화행사, 그 외에도 필리핀 민다나오의 세비어 대학생들과 평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 ● 아프가니스탄 여성센터 건축

아프간 JTS는 올해 현장 사무실을 철수하고 현지인을 중심으로 하여 바미얀 지역에 여성센터를 건축하기로 하고 진행중이다. 이번에 짓고 있

는 여성센터는 아프간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 ● 스리랑카 1차 지원사업 점검 및 2차 지원사업 현지답사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JTS 이사장인 법륜스님과 국제부 최정연부장 등 총 3명은 스리랑카로 피해를 입었던 스리랑카의 유치원 복구사업을 둘러보았다. 2월 1차 답사 이후 JTS에서 지원하였던 15개 마을의 유치원 건축의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이번에 2차로 추가로 지원할 23개 지역을 답사하였다. 1차로 지원한 유치원은 마무리 되고 있고, 새로 추가로 8월 말까지 15개 지역 모두 준공될 예정이다.

## 국내소식

### ● JTS 구호물품 창고 준공식



지난 7월31일(일) 울산의 두북 정토마을 내에 JTS의 물류창고 준공식 있었다. 총 180평으로 지어진 이번 물류창고는 JTS가 지원하는 각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영남권의 활동력을 넓혀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 아프간 인권위 의장, 시마 사마르씨 정토회 방문



지난 7월20일 아프간 인권위 의장이면서 부통령을 지냈던 시마 사마르씨께서 정토회관을 방문하여 법륜스님과 박지나 이사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시마 사마르씨는 아프간에서 JTS가 바미얀 지역과 칸다하르 지역을 지원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시마 사마르씨가 대표로 있는 수하다와는 올해 바미얀에 여성센터를 건축하는데 함께 하고 있다.

시마사마르씨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으며 정토회관 방문은 이번이 2번째이다.

### ● 인도 건축·지바카병원 보고회



지난 7월18일(월) 인도 건축 담당자인 이재성님과 7월29일(금) 지바카병원 담당자인 김정준님의 보고회가 강당에서 있었다.

평소에 문서와 사진만으로 활동 소식을 접하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오픈강당은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시설, 분장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지바카 병원의 결핵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 아프간 유정길님 보고회

7월18일(월) 강당에서 아프간에서 오신 유정길님이 그동안 해 온 카불과 칸다하르, 바미얀 지역의 아프간 사업을 총정리 해주었다.

아프간 JTS는 올해 현장 사무실을 철수하고 현지인을 중심으로 하여 바미얀 지역에 여성센터를 건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이다.

### ● 연말 세금공제 영수자 이름 변경

연말정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자이름이 후원자이름으로만 발급되기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후원자 이름을 변경할 때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반드시 알려주어야 연말 세금공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 ● 필리핀 후원물품 전달

이사장을 포함하여 12명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지역 현장방문을 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문구류 1000세트와 주민들에게 선물로 줄 수건 2장에 비누 2개를 넣어 만든 수건비누세트를 300개를 만들었다.

### ● 풍성초등학교 저금통 계수작업

풍성초등학교 507명이 저금통으로 모아준 동전이 2,836,560원이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모아준 풍성어린이들의 후원금이 북한친구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것이다. 감사편지와 함께 고마움을 전했다.

라진·원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5년 8월 15일 현재



#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5년 8월 15일 현재



\* 회색으로 채워진 곳은 현재 지정기탁자가 없는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 단체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새롭게 후원해 주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광주

빅마트두암점 12,460 빅마트두암점 15,060 빅마트두암점 7,320 정상일 4,580 최순희19,220 한경진 35,490

## ▶ 대구

강건호 9,590 강남주 20,660 고아름 5,710 공종임 20,950 공진도영가 3,430 구창성9,370 권미경 1,680 김기현 3,750 김명희 5,570 김정 19,080 김현성 12,500 대구일중 26,010 라성욱 23,560 류정희 21,780 모덕왕 30,060 무명 13,720 무명 6,430 무명 5,950 무명 22,600 무명 7,860 무명 9,860 무명 8,710 무명 33,330 무명 33,770 무명 7,410 무명20,740 무명 79,850 무명 24,000 박형훈 16,070 배남주 15,410 배원필 1,900 성선애2,140 손경희 111,000 송동훈 9,020 심재의 1,640 양승배 8,390 유환희 6,350 이연지8,680 이연호 16,190 이현록 29,520 임은숙 11,990 임지는 6,670 장선옥 71,400 조애령2,590 조일림 6,330 조일림 2,200 채근정 2,000 채정기 32,270 최창주 18,240 해인심(김명숙) 22,950

## ▶ 대전

김낙훈 31,470 김찬수 2,520 김현수 14,350 김혜진 4,220 김희정 18,380 무명 1,610 무명 1,710 무명 1,600 무명 6,400 무명 780 무명 2,720 무명 880 무명 1,500 무명 2,260무명 2,520 무명 10,400 배정민 2,860 배효기 7,400 서덕현 2,370 서민정 3,920 이정선11,390 장경옥 14,800 정봉진 23,280 정주성 14,920 최병연 21,400

## ▶ 동래

강양중 13,790 김지는 2,930 무주상 34,510 무주상 48,000 무주상 630 무주상 22,500 박지숙 26,630 박지영 18,840 법문주 112,800 양שמ기 690 이미선 28,270 임호 26,510 주은정 10,150 최만조 4,300 최만조 890 최만조 1,960 최만조 1,220 황선영 31,550

## ▶ 마산

구민희 6,680 김숙자 25,000 김정은 7,170 김해김춘부 13,050 노미야 84,700 농산물도매시장원협중매인사무실 11,280 무명 21,160 무명 14,310 무명 7,810 무명 22,650 무명4,440 무명 42,280 무명 14,840 박대리 3,700 북면세이브마트 20,450 시장슈퍼 13,390 옥강의원 12,390 옥강의원 5,270 이경숙 44,700 이숙미 29,010 이해연 12,320 이효순18,070 장진우 2,050 정원희 42,000 종출 18,350 최은지 6,720 함정민 7,000

## ▶ 서울

갈현초등학교6-4고정희 21,120 갈현초등학교4-3김성수 82,840 강분석 32,750 광봉준 27,380 광동중학교 27,900 권금복 320 김기욱 500 김무로 37,340 김석기 57,010 김수옥 1,380 김영미 4,020 김영운 2,310 김윤정 13,170 김은숙 1,700 김은실 2,440 김준웅 29,130 김철호 6,000 김태균 20,660 김형욱 20,030 김희태 20,790 남서울서초중앙 18,950 덕생 17,580 류상엽 11,850 류연주 9,340 무명 57,850 무명 24,030 무명 7,090 무명 2,320 무명 850 무명 1,110 무명 12,130 무명 16,110 무명 3,580 무명 2,930 무명 1,000 무명 2,000 무명 450 무명 1,700 무명 3,200 무명 700

#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무명 2,400 무명 2,800 무명 600 무명 450 무명 2,150 미리암 30,000 민경옥 21,950 민경중  
 22,600 박경석 14,650 박금실 1,300 박순남 120,000 박영준 20,930 박화식 6,930 반포보건진료소  
 63,560 배명자 9,170 배수정 21,740 삼헌어린이 7,850 송산 27,270 신연진 36,190 안승옥 21,860  
 안영진 27,890 안영진 25,690 안희진 15,880 오인순 380 옥인자 26,400 유근세 35,400 윤금자  
 39,900 윤선화 600 윤옥순 30,630 윤주호 15,110 이경숙 1,350 이덕기 18,860 이숙 280 이순복  
 2,480 이영일 1,580 이정건 25,890 이정자 24,650 이향우 40,850 이향호 50,550 이현애 1,010 이  
 혜자 79,160 임선지 18,980 임종복 9,240 임종복 28,260 임종옥 5,720 전신복,김순옥 1,500 정광석  
 2,170 정수미산 44,400 정호준 14,920조유정 2,610 채정혜 33,220 최대원심 11,900 최복실 1,350  
 최희선 24,530 추점순 34,580 한혜자 49,120 허문희 1,500 허초금 920 현성 870 홍선사(총계  
 257,080 지목 33,750 유용한 19,760 정진화 25,090 한남일 35,130 이현석 19,829) 황병조 8,850  
 풍성초등학교(가지면 8,490 강경지 8,110 강다혜 2,280 강대옥 6,670 강민구 4,520 강성민 4,370  
 강유광 6,640 강유빈 8,860 강재연 8,850 고동균14,430 고동옥 5,560 고윤담 1,650 고인경  
 14,050 고주영 6,380 고하영 2,010 공현택 4,700 구봉두리 6,060 구자윤 8,660 구진우 12,120 권  
 중훈 3,860 권추은 9,340 권희도 8,060 권희철 8,440 금승연 2,560 기인주17,980 김경서 4,870  
 김경현 3,620 김고흔 610 김기환 4,790 김나영 2,950 김나현 3,960 김나현 9,600 김다연 2,610 김  
 다영 5,500 김다영 4,170 김다희 3,870 김대현 2,590 김도연 1,560 김도완 780 김동민 12,960 김  
 동성 2,190 김동진 1,750 김두루 4,550 김재수 7,920 김명채 2,410 김민경 11,450 김민균 5,800 김  
 민정 910 김민준 2,350 김민중 780 김범식 4,800 김부영 6,480 김상연 18,240 김상우 6,850 김상  
 원 5,810 김석현 5,170 김성식 15,340 김성재 7,110 김세희 3,070 김소연 600 김소진 4,030 김솔미  
 3,450 김승은 2,150 김순보 1,870 김시형 4,230 김신혜 3,010 김연중 13,950 김영미 5,350 김영완  
 5,340 김영재 1,110 김영진 2,150 김영찬 1,490 김예은 6,550 김예지 18,120 김예지 2,790 김우성  
 1,190 김우진 8,720 김우진 18,710 김유나 10,700 김유민 4,910 김유진 4,200 김윤경 5,700 김윤정  
 1,480 김윤지 12,400 김은 790 김은수 7,080 김은영 3,050 김은진 15,780 김재경 10,230 김재완  
 6,790 김정수 1,310 김정용 14,610 김주한 5,130 김지수 3,780 김지수 4,300 김지영 8,630 김지원  
 3,540 김지는 2,750 김지는 10,970 김지호 4,310 김찬식 23,090 김찬호 5,790 김태준 11,950 김태  
 현 1,740 김태희 8,680 김현성 9,390 김현영 1,740 김현정 2,080 김현지 4,280 김현진 2,890 김현  
 진 2,640 김현진 8,560 김혜인 17,240 김혜주 7,760 김혜진 4,790 김호진 1,290 김효진 1,000 김희  
 선 750 나연 1,480 나윤희 3,820 도영지 3,870 도제문 6,050 독고경민 7,800 독고경진 7,650 동유  
 진 6,690 동호준 8,520 류원식 5,930 류현진 1,570 맹서영 1,000 맹지현 400 명재현 1,400 무명  
 10,670 무명 5,540 무명 2,400 무명 4,150 무명 940 무명 1,570 무명 3,650무명 2,260 무명 690  
 무명 1,030 무명 1,540 무명 910 무명 1,540 무명 5,460 무명 3,390 무명 370 무명 880 무명  
 1,550 무명 1,040 무명 4,500 무명 1,530 무명 3,150 무명 5,640 무명 18,450 무명 3,160 무명  
 2,670 문도연 1,350 문소연 1,340 문연선 4,400 문정현 3,010 민정아 7,550 민지원 1,470 민지혜  
 3,800 박대준 3,250 박대현 7,420 박동우 5,010 박민지 5,550 박병호 11,040 박상민 2,600 박상현  
 330 박서연 9,100 박선희 15,790 박성우 4,670 박성준 1,070 박성준 1,200 박세준 8,180 박소은  
 4,100 박소정 16,810 박수빈 2,400 박솔기 660 박승원 1,300 박승현 4,450 박연재 6,630 박영준  
 6,200 박영준 2,110 박예린 1,560 박윤배 1,090 박은채 6,240 박재성 6,300 박재완 1,730 박재형  
 7,510 박재희 3,450 박정완 7,900 박정음 8,720 박종현 17,500 박종호 3,080 박준명 4,720 박준모  
 6,210 박준성 5,710 박준하 2,560 박지민 4,600 박지수 1,810 박지는 8,430 박지현 4,530 박진이  
 23,950 박현영 16,650 박현우 3,910 박현준 1,480 박형주 24,400 박혜영 14,140 반가영 2,010 배  
 정원 5,710 백경호 3,400 백성현 8,280 백승효 5,330 백종현 2,610 서명훈 3,210 서수민 4,940 서

#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승현 7,290 서재덕 4,570 서지혜 2,880 서지훈 3,690 서희주 2,570 성다는 980 성영노 4,620 세  
 용 11,370 소희 4,870 손문혁 9,730 손예원 1,870 손유래 4,850 손주희 6,690 손지원 6,070 손채현  
 1,650 송기호 220 송민경 4,310 송민정 19,890 송재현 15,960 송재협 7,900 송진호 3,000 송찬호  
 4,900 송태선 1,930 송현미 19,610 송형주 6,010 신광훈 2,050 신다슬 3,490 신동진 1,690 신성태  
 2,890 신연주 1,570 신예인 6,750 신용국 3,480 신원식 4,440 신윤지 870 신재홍 7,400 신준원  
 16,090 신지수 1,030 신흥주 1,030 심명희 2,870 안지현 9,780 안현규 5,720 안형범 5,160 안효진  
 4,870 안효진 2,660 양예준 12,350 양종윤 1,160 양준호 4,000 양지수 2,930 양해민 9,660 엄성인  
 4,050 여봉준 7,040 여윤재(진형준) 9,480 오수진 4,380 오양숙 20,030 오운택 1,020 오원우  
 7,840 오정훈 14,210 우한솔 2,470 유민재 10,460 유민진 880 유성관 4,550 유승환 4,490 유재진  
 4,250 유주연 3,770 유지수 3,000 유지영 5,750 유지현 11,520 유진현 14,710 유현우 11,010 유현  
 지 5,350 유홍준 7,120 윤동민 1,120 윤득수 2,710 윤득수 2,610 윤민지 4,070 윤보미 6,830 윤서영  
 1,890 윤영지 6,050 윤웅기 1,360 윤종석 13,600 윤찬빈 11,040 윤초연 6,910 윤희선 1,270 은재관  
 5,170 이강현 9,550 이경원 1,920 이규진 7,510 이기서 3,300 이기훈 4,620 이기훈 2,420 이나현  
 2,090 이다경 3,050 이다연 3,690 이단비 6,700 이동형 1,000 이동후 9,150 이두현 1,730 이병선  
 2,050 이민수 3,000 이민영 10,840 이민우 2,750 이민정 1,740 이상근 13,510 이선우 8,240 이선  
 중 6,970 이선철 4,960 이상옥 8,520 이상호 5,610 이소연 2,170 이소민 3,580 이승섭 12,930 이승  
 수 1,670 이승호 5,960 이승환 13,580 이아람 3,430 이연경 1,270 이영주 4,580 이영지 16,020 이  
 예빈 4,500 이예슬 2,120 이예원 1,000 이용우 4,620 이우빈 990 이우진 7,600 이우혁 10,090 이  
 원영 7,360 이유림 1,040 이유수 14,960 이유연 6,500 이유준 2,530 이윤재 5,920 이은비 1,240  
 이은지 8,350 이자승 5,040 이재성 1,350 이재원 7,790 이재원 4,060 이재은 4,920 이재은 2,720  
 이정근 14,650 이정민 10,360 이정형 1,150 이정호 2,900 이정희 2,700 이종원 2,760 이종은  
 2,280 이종인 1,750 이종현 4,790 이주영 8,200 이주원 6,740 이주호 7,280 이준규 7,810 이준규  
 1,850 이준범 3,730 이준용 1,930 이준홍 16,470 이지성 3,880 이지희 1,960 이진우 9,350 이진우  
 4,570 이진주 3,980 이찬희 15,050 이채영 1,570 이태중 1,240 이현기 4,150 이현인 4,750 이혜린  
 3,400 이혜민 9,200 이호준 300 인다영 6,700 임근일 15,560 임성금 3,610 임소윤 13,450 임수민  
 2,480 임윤지 7,950 임일웅 10,140 임재범 6,770 임주현 6,060 임지민 2,390 임지현 3,140 임진범  
 4,430 임해준 21,120 임현석 11,310 임형택 27,850 장기영 2,450 장동주 1,750 장윤선 6,510 장윤  
 정 2,570 장재영 1,000 장재용 11,070 장진욱 4,850 장창익 3,150 전민혁 1,680 전상민 4,400 전상  
 현 2,770 전승환 11,220 전영은 3,850 전예진 6,580 전우진 6,970 전유진 4,030 전형규 13,940 전  
 형진 3,140 정다슬 680 정다인 11,550 정다진 970 정다진 1,700 정동민 1,750 정동진 3,210 정선  
 아 4,070 정수진 3,560 정수현 2,180 정연재 7,380 정연재 7,250 정오영 15,650 정주진 2,530 정  
 찬용 5,340 정하용 6,830 정혁재 9,500 조관익 3,020 조규희 13,140 조성현 2,740 조수빈 4,010  
 조수연 8,440 조연주 5,240 조영진 7,720 조예진 22,450 조윤지 10,350 조은비 6,570 조준영  
 6,130 조채형 2,350 조현우 5,600 조혜연 2,230 조혜원 3,820 조혜진 940 조희정 2,680 지니  
 4,270 지현림 1,960 진형준 2,860 차명기 8,900 차진주 2,750 차혜나 11,450 차홍림 1,550 천경민  
 3,420 천해림 2,910 최미연 5,260 최미정 2,400 최미현 5,600 최서우 1,080 최서현 5,500 최성훈  
 820 최소연 6,070 최소연 3,970 최소윤 850 최소혜 9,820 최승원 6,320 최원규 870 최영운  
 3,400 최용석 2,180 최용석 7,930 최윤수 4,080 최이란 8,230 최재원 5,140 최재혁 3,370 최재혁  
 1,340 최지민 12,740 최현 5,300 최현준 3,190 최현진 870 최혜민 1,840 최혜웅 2,460 최혜웅  
 2,870 최호석 3,530 한석준 3,600 한예원 770 한정선 4,670 한주원 4,060 한지는 1,930 한지호  
 7,840 한혜민 5,030 허수민 3,180 허수진 5,300 허찬행 2,310 허태민 340 황문영 8,590 황윤지

#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180 황지은 6,610 황효준 1,910 황효진 5,430)

## ● 울산

구은용 50,870 권순범 24,620 김소정 7,260 김춘남 34,000 무명 10,190 무명 110,680 안수용 61,250 여오름 21,410 윤화용 20,000 정지윤 19,030 최동호 19,040

## ● 제천

강영순 7,070 유동욱 39,050 유윤식 102,480 이상분 16,400

## ● 청주

권춘자 7,880 기홍진 24,620 김경순 14,320 김동수 24,210 김동윤 23,510 김민혁 8,580민안자 30,460 박다운 34,020 박준자 27,260 변상원 9,880 변상호 8,210 신인순 36,260안재욱 4,350 안재환 4,510 연홍석 17,180 오영주 127,500 유일환 1,360 유정란 17,320윤지혜 15,380 윤학수 35,870 이건주 4,530 이영진 11,170 이원근12,630 이진우15,810이현정 10,330 임병윤 27,980 전성훈 1,860 정남식 32,230 최광수 39,450 최성진 9,360

## ● 해운대

공양순 36,670 구포행나무집 21,480 김동명 22,180 김미숙 22,100 김연천 5,710 김태순15,460 노효원 30,810 무명 47,010 무명 19,600 무명 8,190 무명 7,490 무명 26,480 무명 3,030 무명 3,990 무명 6,440 무명 13,200 박명자 2,440 박순옥 71,000 박정필 23,020 박청임 26,500 부산연천중3-8 18,900 설상수 32,800 설상수 31,220 안용준12,020 오봉근영가 19,010 옥유득 54,750 우경자 21,170 이경민 27,720 이원호 19,790이정자 25,440 전미희 21,390 전영옥 24,280 전은주 34,170 전은주 32,020 정상현11,250 진미용실 9,430 허성준 35,120 허재영 14,180 허진선 5,770 허현 27,800

- 북한어린이를 위해 통일돼지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으로 연말공제 영수증을 받으실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전화 : 587-8753, 담당 : 김순연)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거리모금 현황

광주 158,930 대구 1,279,580 대전 135,400 마산 4,074,440 서울 3,716,090  
청주 361,560 해운대 125,600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인도후원회원

이숙희	P0001973	김봉덕	P0011406	권수경	P0013562	김정택	P0014154
김형수	P0002462	김혜순	P0011432	최옥엽	P0013570	이택수	P0014161
김우기	P0002486	김종덕	P0011479	정효은	P0013571	김백식	P0014180
김경희	P0002504	전행열	P0011815	김성수	P0013572	황재운	P0014197
권민희	P0002697	황선문	P0011833	서호필	P0013592	오희만	P0014201
김원자	P0002829	김광선	P0011977	황수선	P0013684	심창애	P0014233
지민규	P0003109	김상태	P0012319	김창수	P0013686	정진홍	P0014237
신승희	P0003253	오미영	P0012491	정정관	P0013712	정진혁	P0014240
정인권	P0003280	이계창	P0012492	우장훈	P0013719	윤경숙	P0014251
노용대	P0003397	정영순	P0012495	이보희	P0013800	고재엽	P0014377
송경주	P0004053	김지명	P0012501	임미경	P0013801	정영훈	P0014388
우경자	P0004066	이화정	P0012504	이미숙	P0013803	송현숙	P0014447
박태현	P0004865	유재한	P0012599	박용범	P0013805	박묘원	P0014450
여백순	P0005010	강정희	P0012686	최점순	P0013808	김나경	P0014527
정태경	P0005114	김정아	P0012696	오은숙	P0013841	김아영	P0014528
이선경	P0005368	김혜진	P0012701	이정훈	P0013855	이응봉	P0014543
박명희	P0005372	변근희	P0012714	김외경	P0013873	조주희	P0014544
여태민	P0006440	류홍기	P0012767	김한결	P0013902		
이종훈	P0006529	조종현	P0012785	일목	P0013930		
이한우	P0006543	황인아	P0012825	임성호	P0013952		
김상률	P0006984	윤화용	P0012997	이원갑	P0013953	오인숙	P0002133
박지현	P0007626	전성호	P0013015	김수진	P0013985	심을택	P0002365
윤인숙	P0007717	안수연	P0013067	임현정	P0013986	김형수	P0002462
김태수	P0007927	홍기표	P0013070	석상종	P0014019	김경희	P0002504
김은숙	P0008368	황수진	P0013099	박들남	P0014026	김복순	P0003301
정미경	P0009463	조은영	P0013124	하덕진	P0014028	배재영	P0003330
한시열	P0009500	김동원	P0013215	최경식	P0014040	이선경	P0005368
김영숙	P0009774	안혜형	P0013246	조인목	P0014076	배승태	P0006251
김종완	P0009867	양지연	P0013247	김성미	P0014080	양윤순	P0008642
김점남	P0010010	최순옥	P0013389	박운덕	P0014085	김세인	P0011151
염윤혜	P0010332	정아임	P0013397	노원주	P0014087	정윤성	P0012215
오빛나	P0010658	윤영란	P0013401	나말순	P0014092	이민배	P0012556
정상일	P0011056	신로미	P0013403	문효정	P0014098	윤철현	P0012716
박정신	P0011106	이우희	P0013415	우영선	P0014101	황인아	P0012825
박수현	P0011322	양신자	P0013476	김나은	P0014114	황수진	P0013099
안정자	P0011335	김경실	P0013484	김태이	P0014120	김옥분	P0013179
		남형우	P0013486	김태용	P0014121	정해균	P0013396
		유필열	P0013557	박효순	P0014147	김경실	P0013484

## 북한 어린이 결연

오인숙	P0002133
심을택	P0002365
김형수	P0002462
김경희	P0002504
김복순	P0003301
배재영	P0003330
이선경	P0005368
배승태	P0006251
양윤순	P0008642
김세인	P0011151
정윤성	P0012215
이민배	P0012556
윤철현	P0012716
황인아	P0012825
황수진	P0013099
김옥분	P0013179
정해균	P0013396
김경실	P0013484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 호 필 P0013592 김 도 균 P0014113  
 김 창 수 P0013686 김 성 현 P0014115  
 정 정 관 P0013712 강 윤 진 P0014159  
 박 윤 회 P0013726 박 진 섭 P0014160  
 이 보 회 P0013800 김 인 경 P0014225  
 박 정 희 P0013804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박 용 범 P0013805 3학년 학생일동 S0014552  
 오 은 숙 P0013841 지 선 P0014321  
 이 정 훈 P0013855 구 동 민 P0014373  
 김 외 경 P0013873 김 승 현 P0014375  
 김 학 석 P0013874 조 광 회 P0014376  
 김 해 찬 P0013901 김 정 립 P0014385  
 이 명 옥 P0013921 임 선 지 P0014446  
 강 병 수 P0013929 이 정 열 P0014449  
 최 병 훈 P0013950 박 묘 원 P0014450  
 최 우 진 P0013964 조 주 원 P0014545  
 김 경 은 P0014029 실 상 사 작 은 학 교  
 김 호 상 P0014043 S 0 0 1 3 7 4 2  
 노 원 주 P0014087 BODYANDSOUL P0014448

## 북한건설 후원

김 희 정 P0002587  
 정 현 정 P0005353  
 김 근 식 P0009905  
 김 경 실 P0013484  
 서 호 필 P0013592  
 박 민 혜 P0014073  
 이 상 철 P0014322  
 류 형 관 P0014433  
 이 인 선 P0014451  
 김 중 자 P0014519

서 호 필 P0013592  
 정 정 관 P0013712  
 박 윤 회 P0013726  
 김 외 경 P0013873  
 최 아 영 P0014116

## 아프간 후원

김 우 기 P0002486  
 이 선 경 P0005368  
 조 은 영 P0013124  
 김 경 실 P0013484  
 서 호 필 P0013592  
 정 정 관 P0013712  
 김 외 경 P0013873

## 결핵퇴치 후원

지 은 아 P0002660  
 이 선 경 P0005368  
 강 다 연 P0008013  
 김 경 실 P0013484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분들 중 첫 후원금을 내신분만 신규회원으로 등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특별후원금

2005년 5월 1일 부터 8월 20일까지

박인복영가 1,000,000원	배 승 태 1,000,000원	유 인 자 1,000,000원	청곡스님 1,000,000원
오 현 숙 50,000원	양 윤 순 300,000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LA정토회 \$1,000
조 종 현 500,000원	실상사작은학교 401,000원	3학년 학생일동 157,640원	황 미 숙 1,000,000원
이 춘 성 50,000원	김 영 길 50,000원	이 승 희 43,000원	마 경 숙 1,000,000원
김 봉 덕 100,000원	윤 명 옥 50,000원	김 성 훈 100,000원	김 태 선 50,000원
예 순 지 10,000,000원	오 현 숙 50,000원	김 이 레 173,000원	이 성 경 100,000원
김 용 보 30,000원	인현중학교 931,220원	이국영영가 500,000원	박 근 숙 100,000원
김 정 택 100,000원	BODYANDSOUL 182,672원	정 영 훈 1,000,000원	장 성 호 10,000원
이광진영가 100,000원	김 태 정 420,000원	지선스님 50,000원	서울정토회대학생부 짜이집
권 민 회 800,000원	이한우(대한불교조계종대구경	김 진 희 150,000원	판매수익금 1,000,000원
정삼도영가 5,000,000원	북포교사단장) 1,000,000원	이 한 준 100,000원	

\*정정합니다. (지난호에 실린 윤형문님 후원금액 3,000,000원이 1,0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 연말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관련

연말소득공제 영수증이 12월 초에 발송됨에 따라 12월 입금 내역은 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12월분까지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분들은 11월 후원금을 내실 때 12월분까지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이체 후원회원은 자동으로 12월 분까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JTS 회원관리 전용 전화개설

회원관리에 대한 문의는 02)587-8992 (담당자 : 정한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명단 확인 바랍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이름, 입금일, 입금은행명 순)**

※ 2회 이상 입금하신 분은 첫 입금내역만 실었습니다.

000 6/29 국민은행	김도영 5/2 외환은행	김영찬 7/21 조흥은행	노미선 5/10 국민은행
강세환 5/25 조흥은행	김도현 5/2 외환은행	김오순 5/10 농협중앙회	노인남 5/29 국민은행
강전형 5/19 국민은행	김동숙 5/2 농협개인	김옥련 5/23 농협중앙회	노재성 5/10 농협중앙회
강정옥 5/30 외환은행	김문기 5/9 외환은행	김옥순 5/10 국민은행	도재권 5/30 국민은행
강태훈 5/9 국민은행	김문자 5/28 우체국	김용호 7/22 농협중앙회	도중득 5/25 기업은행
강해수 5/12 농협중앙회	김미경 5/18 농협중앙회	김은숙 5/23 농협중앙회	류미화 6/28 국민은행
경남 LSPVMFFPRT	김미숙 5/9 우리은행	김은영 6/14 농협중앙회	류은화 5/2 하나은행
5/6 우리은행	김미정 6/27 농협중앙회	김일윤 6/22 농협중앙회	마현미 5/20 국민은행
곽영숙 5/6 외환은행	김미좌 5/25 우체국	김점순 5/16 농협중앙회	문상인 6/7 국민은행
곽경길 5/2 농협중앙회	김민태 5/17 농협중앙회	김정기 5/30 외환은행	문희경 5/25 농협중앙회
구룡평목장유 7/11 조흥은행	김복순 5/20 제일은행	김정식 7/25 조흥은행	민경희 5/13 국민은행
구본원 5/23 농협중앙회	김선미 5/18 농협중앙회	김정열 5/2 국민은행	민선주 7/4 국민은행
권대현 5/20 외환은행	김선옥 5/2 농협중앙회	김정이 5/25 국민은행	박경진 6/20 농협중앙회
권미영 6/18 농협중앙회	김성훈 5/20 우리은행	김진영 5/16 제일은행	박문태 5/26 농협중앙회
권연수 5/17 국민은행	김소정 5/16 우체국	김진형 5/27 국민은행	박미옥 5/2 하나은행
김갑순 5/2 농협중앙회	김수진 5/30 우리은행	김진환 5/25 국민은행	박범숙 5/16 하나은행
김귀래 5/10 제일은행	김애숙 5/16 국민은행	김태순 6/22 외환은행	박상아 5/2 농협중앙회
김기만 5/16 농협중앙회	김양수 5/13 외환은행	김풍기 6/24 국민은행	박선용 7/29 조흥은행
김기수 7/6 농협중앙회	김영민 5/2 국민은행	김혜정 5/16 우체국	박성년 5/18 외환은행
김기환 5/6 농협중앙회	김영찬 5/23 조흥은행	김흥규 5/27 국민은행	박수정 5/10 국민은행

박순경 5/16 우체국	여정애 5/25 우체국	이용승 5/26 국민은행	조석울 5/30 조흥은행
박양진 5/19 국민은행	여현주 5/24 국민은행	이인옥 6/1 농협중앙회	조영순 5/2 농협중앙회
박정희 5/31 외환은행	연미경 5/20 우체국	이정빈 5/2 농협중앙회	조인정 5/6 농협중앙회
박계정 6/18 농협중앙회	오금실 5/3 조흥은행	이종구 5/16 농협중앙회	조정숙 5/17 하나은행
박주용 5/20 국민은행	오명희 5/20 국민은행	이종현 5/26 농협중앙회	조현정 5/9 조흥은행
박지상 5/25 농협중앙회	오미령 7/1 국민은행	이주영 5/4 국민은행	조홍식 6/3 국민은행
박화자 5/16 농협중앙회	오진옥 5/2 조흥은행	이지용 5/17 우체국	주용운 7/25 기업은행
배병훈 7/25 우리은행	오태희 5/20 농협중앙회	이한수 5/24 우체국	주은정 5/26 우체국
배예현 5/13 농협중앙회	오형진 5/16 조흥은행	이항옥나라 7/20 농협중앙회	주혜영 5/20 농협중앙회
배재석 5/26 외환은행	왕정미 5/20 국민은행	이현숙 7/8 농협중앙회	지보사 5/20 국민은행
배정자 5/5 국민은행	유강하 5/2 국민은행	이현정 5/4 국민은행	진불암 6/10 국민은행
백경희 5/10 농협중앙회	유상열 5/26 국민은행	이화순 5/10 농협중앙회	진택근 5/2 국민은행
백성미 5/2 농협중앙회	유상혁 5/20 국민은행	이효정 5/2 조흥은행	차미화 5/23 제일은행
백성미 6/30 농협중앙회	유필렬 6/30 우체국	임영해 5/2 농협중앙회	채금주(사업자)
백을순 5/2 농협중앙회	유필여 5/2 국민은행	임재찬 7/12 농협중앙회	6 / 2 0 국민은행
변성운 5/23 농협중앙회	유희연 5/25 조흥은행	임창숙 5/2 농협중앙회	최경순 7/15 농협중앙회
부처님법은누리에	윤길순 5/20 농협중앙회	장경숙 5/30 하나은행	최경식 5/2 국민은행
5/20 국민은행	윤봉숙 5/25 농협중앙회	장병대 5/8 농협중앙회	최기영 7/19 조흥은행
복한어린이결연	윤은주 5/30 국민은행	장정수 5/30 국민은행	최명임 5/10 조흥은행
5/19 제일은행	이경선 5/2 농협중앙회	장진숙 5/2 조흥은행	최순이 7/18 국민은행
서동진 5/20 하나은행	이경열 5/30 조흥은행	정구옥 5/16 농협중앙회	최영숙 5/10 조흥은행
석명희 6/20 농협중앙회	이경옥 7/27 농협중앙회	정선길 5/18 기업은행	최영희 6/30 국민은행
손광희 5/23 조흥은행	이경화 6/20 농협중앙회	정성숙 7/11 농협중앙회	최정란 5/2 국민은행
송경순 7/6 국민은행	이경희 5/2 우리은행	정성아 5/19 농협중앙회	최지영 5/28 국민은행
송경애 5/6 농협중앙회	이광숙 5/30 국민은행	정양수 5/12 국민은행	최태연 5/31 국민은행
송민철 6/28 국민은행	이귀숙 5/20 외환은행	정영하 5/10 국민은행	풍류도태허수련원
송원스님 5/26 국민은행	이덕한 5/20 농협중앙회	정용균 5/16 국민은행	7/4 국민은행
송재득 6/28 국민은행	이동근 5/10 농협중앙회	정유섭 6/1 조흥은행	필리핀노재국 5/4 외환은행
신동명 5/30 조흥은행	이동환 5/2 국민은행	정윤수 5/25 국민은행	한만석 5/19 농협중앙회
신동호 7/16 국민은행	이만덕 5/27 하나은행	정은선 5/3 농협중앙회	한미향 5/24 국민은행
신순경 5/2 국민은행	이부건 6/15 국민은행	정은지 5/27 국민은행	한정태 5/6 국민은행
신순영 7/13 국민은행	이상화 5/31 조흥은행	정인숙 6/10 국민은행	허경자 5/2 외환은행
신은섭 5/30 농협중앙회	이선균 5/9 국민은행	정주영 5/26 국민은행	허준평 6/7 국민은행
신정미 5/23 농협중앙회	이선주 5/25 국민은행	정지윤 5/30 국민은행	홍상숙 6/3 국민은행
신창호 5/1 국민은행	이성숙 5/2 국민은행	정진오 5/2 국민은행	홍석완 5/20 조흥은행
신현정 5/2 조흥은행	이성욱 5/23 농협중앙회	정태순 5/2 우리은행	홍언년 5/26 국민은행
심정섭 5/17 국민은행	이숙희 6/25 국민은행	정현아 5/16 우체국	홍윤숙 5/20 하나은행
심지연 5/12 우리은행	이쌍재 5/6 국민은행	정현정 6/20 농협중앙회	홍지영 5/3 국민은행
심화자 7/19 농협중앙회	이연숙 7/15 우리은행	조명순 6/15 우체국	홍창표 5/23 농협중앙회
안미영 5/18 농협중앙회	이연숙 5/7 우체국	조미영 7/4 조흥은행	황영애 5/23 농협중앙회
엄금녀 5/17 농협중앙회	이영수 7/27 우체국	조병민 7/7 우리은행	



2005년 6월 11일~8월 20일까지

1. 운주선원 사탕 13봉지, 대야 37개
2. 금천선원 타올, 여린닝, 양말 등 생필품 1박스
3. 강재연 비누 31, 수건 3, 치약 2
4. 김순연 캠페인용 핸드마이크 700,000원 상당
5. 정미숙 캠페인용 핸드마이크 200,000원 상당
6. 김순연 비누 1샷트 10개
7. 소림사 수건 12, 양말 12, 런닝 6 등 생필품 1박스
8. 워싱턴정토회 칫솔120, 칫솔연필셋트 72
9. 구정숙 여성자켓 5장
10. 제이유네트워크(주) 나노테크실버치약 160그램×5개×10박스×5박스, 데이바스비누 100그램×9개×10박스×4박스 총 5,764,000원 상당
11. 에이비텍 벽시계 10, 연필깎이 10 총 240,000원 상당
12. 서울정토회 수건 100, 비누 150, 치약 1
13. 대전정토회 비누 49, 수건 35, 치약 37 등 생필품 1박스
14. 대구정토회 비누 160, 치약 57, 지우개 53 등 생필품, 문구류 2박스
15. 청주정토회 수건 62, 비누 162 등 생필품 2박스
16. 해운대정토회 수건 100, 비누 200 등 생필품 3박스
17. 동래정토회 수건 28, 비누 34 등 생필품 1박스
18. 마산정토회 수건 27, 비누 83, 양말 36, 치약 41 등 생필품 1박스
19. 서울정토회 대학생부 재활용의류 19장

## 북한어린이돕기 집중모금기간

기간 : 9월 26일~10월 5일 (10일간)

전국적으로 북한돕기 캠페인 및 거리 모금을 진행합니다.

‘땀한공기 나누기’와 ‘호미한자루 보내기’를 취지로 하여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 돕기와 북한 개발 후원금으로 쓰여 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인도에 보낼 의약품·원단 모으기

10월 초순에 인도에 보내게 될 의약품과 원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바카병원 외래환자는 월평균 300여명으로 해열진통제, 소염제, 피부치료제, 화상치료제, 종합비타민, 구충제 등이 필요합니다. 후원 받은 물품은 등계스와리지역 1만2천여명 주민과 수자타 아카데미와 17개 마을유치원 2,500여명 학생 등에게 제공됩니다.

문의 : 587-8995